

재활전문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직무만족의 관련성 분석

조남정 · 김병찬 · 설승배 · 배원식* · 김지혁 · 안진호¹

한려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경남정보대학교 물리치료학과, ¹우리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실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Self-Esteem and Job Satisfation in Rehabilitation professional Physical Therapist

Cho Namjeong, PT, PhD, Kim Byungchan, PT · Seol Seungbae, PT · Bae Wonsik,
PT, MPH* · Kim Jihyuk, PT, MPH · An Jinho, PT¹

Dept. of Physical Therapy. Hanlyo University

Dept. of Physical Therapy.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¹Dept. of Physical Therapy. Woori Rehabilitation Clinic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self esteem, job satisfation in rehabilitation professional physical therapist.

Method :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nsist of 200 physical therapists of Busan rehabilitation hospital.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 to October 4 in 2012 by structurated questionnaires.

Results : Physical therapist Job satisfaction and gender classification according to self esteem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respectively($T=2.02$, $P=.044$), ($T=2.17$, $P=.031$). Job satisfaction and age according to the therapist according to the number of job stres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respectively($F=3.57$, $P=.030$), ($F=3.18$, $P=.044$). Job satisfaction, job stress and self-esteem of a physical therapis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P<.01$)

Conclusion : Effective countermeasure for ways to relieve stress, and the necessity of developing the program at the same time, for the relief of the physical therapist, the physical therapist yourself to have self-esteem

Key Words : job satisfaction, self esteem, job stress

*교신저자 :

배원식 f452000@nate.com, 051-320-2913

논문접수일 : 2013년 1월 24일 | 게재승인일 : 2013년 3월 6일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현대 문명은 인간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건강의 개념과 건강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변화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의식변화와 생활수준의 향상과 같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의학 분야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산업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장애자의 수가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의 예방이나 조기발견의 필요성 뿐 아니라 의료 재활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홍명애, 2002).

물리치료사는 환자를 가능한 한 최대한 기능적인 면에서 완전히 독립시켜 사회로 복귀시킨다는 재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담, 평가, 치료를 하면서 재활팀에서 핵심적인 구성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체로 과도한 업무와 근무시간, 낮은 보수 등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안소운 등, 2002). 특히 전제균(1991)은 병원 전문직인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이 비전문직인 병원 사무직원보다도 낮다고 보고함으로써 물리치료사의 심각한 직무 불만족 수준을 말해주고 있다. 물리치료사의 전문적인 능력, 직무에 대한 만족감과 효율성은 환자 치료에 있어서 효과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리치료사의 태도와 목적의식,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인성 등에 따른 요인은 치료를 받는 대상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김명자, 2003).

물리치료사는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에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환자의 장애 정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에 적합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직무에 만족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물리치료사가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없을 때에는 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물리치료를 기대하기 어렵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발전을 꾀할 수 없을 것이다(이형수 등, 2005). 따라서 최적의 근무조건과 업무 스트레스 경감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스트레스란 환경의 요구가 지나쳐서 개인의 능력을 벗어날 때 개인의 환경과의 부조화에 의해 나타나는 반응으로, 개인의 능력과 환경의 요구간의 적합성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같은 크기의 환경 요구나 압력이라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거의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스트레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업무조직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이거나 반복 또는 가속될 경우 능률과 생산성 및 직무만족도를 저하시키고, 부정적인 직업관 형성으로 잦은 결근, 태만, 과실들을 유발시킬 수 있다(배정리와 서문자, 1989). 나아가 지나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여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소진상태가 되거나 개인의 업무 및 조직에 부정적인 다른 스트레스 반응양상을 나타낸다(최은주, 2001).

직무스트레스란 일반적으로 위협적인 환경특성에 대한 개인의 신체적, 감정적 반응으로서 근로자들이 직무수행 방식과 근변하게 변화되는 작업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권용만, 2005). 직무 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조직의 유효성 즉 이직의도, 직무만족, 직무몰입, 업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을 한다. 관련하여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조직유효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중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조절변수가 되리라 예측한다. 자아존중감이란 어떤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동기나 인지적인 자원, 그리고 일련의 활동을 하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의 포괄적인 판단이며

(Bandura, 1997), 주어진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 과정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에 관계가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이 대부분 혹은 모든 직무의무나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성공한다고 밝혀져 있다(강영식, 2006)

한편 봉영숙 등(2009)은 자아존중감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스스로 자율적인 행동을 한 경우에 직무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보다 발전적이고 성숙할수록 내적 동기부여가 강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Rosenberg & Pearlman, 1978).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활동하는 개인의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변화를 줄 수 있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실패에도 잘 직면하여 보다 가치 있는 산출물을 얻어내고 직무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도 잘 적응하여 어려운 과제나 고통, 불유쾌한 경험에도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자아존중감은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제안될 수 있다고 하였다.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에 대한 개념은 1930년대 이후 많은 자들에 의해 중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었으며 Poter와 Lawler(1968)는 직무 만족은 실제로 얻는 보상이 정당하고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한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Locker(1976)는 직무나 직무 수행의 평가에서 오는 유쾌한 감정의 상태라고 하였다(이소은, 2007).

그러나 재활전문 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에 따른 직무만족에 관한 조사는 타 직업군에 비해 조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활전문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와 관련되어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재활전문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과 직무만족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하였다.

첫째, 재활전문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재활전문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를 알아본다.

셋째, 재활전문 물리치료사의 자아존중감을 알아본다.

넷째, 재활전문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과 직무만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II .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대상자는 부산시 및 경남에 소재한 6개의 재활치료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임의표출 하였으며,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로 설문조사에 응한 200명의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측정도구

가.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장세진 등(2005)이 개발한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43가지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이를 수정 보완한 단축형인 24개 문

항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총 7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요인 1은 조직체계와 보상부적절(Organizational system and lack of reward), 요인 2는 직무요구도(Job demand), 요인 3은 직무자율성 결여(Insufficient job control), 요인 4는 대인관계 등(Interpersonal conflict), 요인 5는 직무불안정(Job insecurity), 요인6은 직장문화(Occupational climate), 요인 7은 고용불안정(Uncertainty of getting a new job)으로 재 개념화 하였다. 도출된 7개 하부 요인의 신뢰도 검정 결과 내적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 a 값은 조직요구도가 .753으로 가장 높았고, 직무불안정이 .640으로 가장 낮았다.

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자아존중감의 측정도구는 Rosenberg (1962)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박옥선(2004)이 번역한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아존중감은 2개의 타당한 하부요인인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축소되었다.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요인 각각의 신뢰도 즉, Cronbach's a 계수는 0.720 과 0.726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 직무만족 측정도구

직무만족에 관한 도구는 박은숙 등 (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23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직무만족에 관한 영역은 직무자체, 직무환경, 감독 및 상사, 동료 등으로 4개의 하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직무 자체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715, 직무환경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779, 감독 및 상사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668, 동료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780으로 각각 나타났다.

2) 자료 수집 방법

재활전문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과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본 연구에 협조 요청에 긍정적인 병원을 대상으로 재직 중인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200부를 우편 및 이메일, 직접방문을 통해 2012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처음 계획한 200부의 설문지 중 199부의 설문지가 회수 되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SPSS 18.0 v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재활전문 물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 변수는 기술적 통계를 이용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Cronbach's a 계수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직무만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 t-검정과 일요인 분산분석(ANOVA)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과 직무만족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연령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고용불안정 요인은 표 1과 같다. 연령별로 고용불안정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F=3.18, P=.044), 26-29세 집단에 비해 30-35세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다.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고용불안정

(N=199)

일반적 특성	고용불안정	F값	P값
연령	25세 이하	2.84±.78	3.19 .044
	26-29세	2.74±.77	
	30-35세	3.09±.72	

M±SD : 평균±표준편차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자아존중감

성별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표 2와 같다.

성별 구별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2.17, P=.031),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N=199)

일반적 특성	긍정적 자아존중감	T값	P값
성별	남자	3.91±.83	2.18 .031
	여자	3.63±.89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은 표 3과 같다. 직무만족의 하위 요인인 직무환경과 직무자체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직무환경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학력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직무환경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2.02, p=.044), 3년제

집단이 4년제 집단보다 컸다.

치료사수에 따른 직무자체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치료사 수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직무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3.57, p=.030), 치료사 수가 46-60명인 집단이 61명 이상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컸다.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직무환경

(N=199)

일반적 특성	직무환경	T값	P값
학력	3년제	2.86±.74	2.02 .044
	4년제	2.62±.75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직무자체

(N=199)

일반적 특성	직무자체	F값	P값
치료사 수	46명 이하	3.46±.64	3.57 .030
	47-60명	3.74±.68	
	61명 이상	3.52±.69	

4.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직무만족의 상관관계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직무만족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은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만족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직무스트레스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5.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직무만족의 상관관계

(N=199)

	직무 자체	직무 환경	감독	동료	대인 관계	직무불 안정	고용불 안정	긍정적자 아존중감
직무환경	.450							
	.000							
감독	.562	.622						
	.000	.000						
동료	.528	.270	.503					
	.000	.000	.000					
대인관계	-.341	-.353	-.376	-.216				
	.000	.000	.000	.002				
직무불안정	-.290	-.586	-.451	-.209	.417			
	.000	.000	.000	.003	.000			
고용불안정	-.316	-.529	-.584	-.283	.431	.506		
	.000	.000	.000	.000	.000	.000		
긍정적 자아존중감	.431	.459	.340	.320	-.554	-.510	-.47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부정적 자아존중감	-.590	-.354	-.445	-.623	.512	.248	.164	-.620
	.000	.000	.000	.000	.000	.000	.022	.000

IV. 고찰

본 연구는 재활전문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이 직무만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제언 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내의 대표성 있는 재활병원을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측정도구의 표준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경우 직무 스트레스 양상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적 특성(나이, 학위,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특성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할당 선정하여 이들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반영하여 직무스트레스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물리치료사들에게 일반적이면서도 특이적인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타당성이 입증된 여러 측정도구들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전문가 의견 및 통계적 분석방법의 과정을 거쳐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일반적 특성별 직무스트레스에서 고용불안정 요인에 대하여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중 30-35세 집단이 29세 이하의 집단들 보다 유의하게 고용불안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직장인의 스트레스로 재활전문 물리치료사 역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이 올라가면서 고용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고용불안정과 구조조정의 영향이 근로자들 자신의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양일심, 1998).

일반적 특성별 긍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타인에 대해 불필요한 신경을 쓰며, 의존심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다(Reasoner, 1983). 이를

위해 사고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 . 훈련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도록 하고 고객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최원주, 2010).

일반적 특성별 직무만족을 살펴보면 직무 환경 요인에 있어서는 3년제 졸업자가 4년제 졸업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실적으로 물리치료사가 3년제와 4년제의 구분없이 단지 면허제로 운영되고 있고 재활전문 물리치료사의 특성상 재활전문치료사 인증이 학제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4년제 졸업자가 만족도에서 3년제 졸업자보다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직무 자체 요인에 있어서 치료사수가 47-60명 집단이 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중급 규모의 재활전문 병원으로서 대형이나 소형 재활전문 병원보다 근무여건이나 치료사와의 관계, 또는 교육여건 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자료수집에 있어서 부산시에 소재한 재활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며, 따라서 물리치료사의 자아 존중감과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V. 결론

본 연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재활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재활전문 물리치료사에서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에 따른 직무만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재활전문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은 직무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특히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같은 과학적 연구들을 기초

로 임상에서 환자들의 재활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들의 스트레스 상황을 요인별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올바른 정보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병원 행정가와 물리치료 부서 책임자들이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방안을 위한 효율적인 대응행위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시에 물리치료사들의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물리치료사 스스로가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식(2006).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지, 26, 123-148.
- 권용만(2005).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고용형태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남서울대학교, 11(1), 9-27.
- 김명자(2003). 장애인복지관 교육재활 담당 교사의 배경 변인 및 담당 교육프로그램이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그리고 이직성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옥선(2004). 언어치료사의 근무실태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숙(2005). 언어치료사의 근무실태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6개 광역시 및 8개 도 근무자들 중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배정미, 서문자(1989).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 정신과 간호사 중심 -. 대한간호학회지, 19(3), 259-272.
- 봉영숙, 소향숙, 유혜숙(2009).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15(3),

- 425-433.
- 안소윤, 김원중, 허영배(2002). 물리치료사의 근무실태와 직무만족 및 직장애착.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4(4), 253-264.
- 양일심(1998).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형수, 송화경, 김한나 등(2005). 전남 동부지역 물리치료사의 근무환경 및 직업만족도 조사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7(1), 71-86.
- 장세진, 고상백, 강동목 등(2005).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대한산업의학회지, 17(4), 297-317.
- 전제균(1991). 물리치료사의 근무실태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3(1), 9-37.
- 최은주(2001). 정신과 간호사의 지각된 스트레스, 대응방법,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원주(2010). 병원간호사의 성격과 감정조절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명애(2002). 물리치료사의 인구학적 변인 및 직업흥미와 직무만족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ndura, A(1997). The anatomy of stages of change. Am J Heal Pro, 12(1), 8-10.
- Locker EA(1976). The nature and causes of job satisfaction. in Marvin D. Dunnett 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go : Rand McNally.
- Porter LW, Lawler EE(1968). Managerial attitudes and performance. Illinois : Richard D. Irwin.
- Reasoner RW(1983). Enhancement of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Family & community health. 6(2), 51-64.
- Rosenberg M(1962). The association between self-esteem and anxiety. J Psychiatr Res. 1(2), 135-152.
- Rosenberg M, Pearlin L(1978). Social class and self-esteem among children and adults. Am J Sociol. 84(1), 53-77.